

9기 전여대협 1년나기 (초안)

발신 : 9기 전여대협(간)
수신 : 각급 단위 학생회

<9기 전여대협 1년나기>는, 9기 전여대협 3대 기조-8대 과제—주요사업으로 제출합니다.

1년의 주요 방향과 과제를 입축하여 명확하게 설정하고, 구체적 계획과 일정은 분기별, 월별로 계획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제출하는 <9기 전여대협 1년나기>와 <2003년 정세전망>을 통해 9기 전여대협의 전체 방향과 사업계획이 얘기될 것입니다.

(아래 9기 전여대협의 3대 기조, 8대 과제, 주요사업 등을 수정, 보완될 수 있습니다)

I. 9기 전여대협 3대 기조

1. ‘학우들과의 소통’을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삼자.

학우들 속에 살아있는 총여학생회, 학우들의 생각과 요구를 바탕으로 활동하는 총여학생회를 만드는 것은 1년 내내 견지해야 할 우선적인 과제입니다. 자기 대학에 맞는 방법으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학우들과 소통해나갑시다. 학우들과의 소통을 모든 사업과 투쟁의 0순위에 놓아야 합니다.

2. 반성폭력 운동, 반미반전 운동을 1년 동안 중심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가자.

현재 여학우들의 삶에서 가장 직접적인 억압으로 작용하고 있는 성폭력을 대학내에서 근절시켜가고 학우들의 의식을 높이기 위한 <반성폭력 운동>, 2003년 미국이 벌이고 있는 이라크 전쟁과 대북적대정책을 여성의 이름으로 반대하고 여성의 힘으로 중단시키기 위한 <반미반전운동>을 6·15 공동선언 이행 투쟁으로 귀결시키는 것은 올해 총여학생회가 그 무엇보다 집중해야 할 투쟁입니다. 반성폭력 운동, 반미반전운동을 1년 동안 중심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갑시다. 그리고 그 외 다양한 투쟁과 사업은 정세와 대중사업 등을 통해 계기적으로 만들어갑시다.

3. 소모임 활성화, 총여학생회 기층단위 활성화에 전력을 다하자.

사람이 모여드는 총여학생회를 만드는 것은 현재 여학생운동의 현황에서 사활적인 과제입니다. 대학별 상황에 맞게 소모임을 활성화하는데 집중하거나, 단대/과 여학우회(부) 등 총여학생회 기층단위를 활성화하는데 전력을 다 합시다.

II. 9기 전여대협 8대 과제

10대 과제를 제출하는 것은, 각각의 과제를 모두 똑같이 실현하자는 것이 아니다. 각각의 과제의 포괄적인 내용안에서 대학별로 계획을 세워보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 학우들과의 소통> 과제에 대해, 우리 대학에서는 이러저러한 구체적인 과제와 사업을 계획하는 식으로 계획을 세웁시다.

1. 학우들과 일상적으로 소통하며, 학우들의 의식과 요구를 바탕으로 사업합시다.

여러 사안과 총여학생회 활동에 대한 학우들의 생각이 어떠한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우들의 생각에 기초해 총여학생회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총여학생회만의 일방적인 선전으로는 학우들의 의식을 높여낼 수 없으므로 학우들과 일상적으로 토론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총여학생회 활동을 펼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1) 학우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고 일상적으로 소통하는 구조 만들기

2) 온라인(인터넷) 활동영역 넓히기

3) 학우들의 의식을 토대로 사업의 중심적인 내용 마련하기

2.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반성폭력 운동을 다양하게 펼쳐냅시다.

1) 반성폭력 운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학우들과 함께 토론하고 의식화합시다.

학우들과 함께 성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토론하고 의식화함으로써, 성폭력에 대한 학우들의 이해를 점차 높여가야 합니다.

- 구체적 내용 : 성폭력의 본질, 판단기준, 공동체 내의 성폭력적 문화, 대처방법 등 대학 학우들의 의식정도에 맞게

2) 학내 반성폭력 정책을 제대로 마련하기 위한 학자활동을 진행합시다.

- 대학본부 차원에서 반성폭력 정책을 마련하도록 총여학생회에서 요구해야 합니다.

- 반성폭력 학칙 개정 사업

3) 학생운동사회 내 성폭력 등에 대한 토론 및 교양

- 한총련 홈페이지를 통한 학생운동사회 내 성폭력 근절 관련 기획연재, 학생운동사회 내 성폭력 관련 주제 사이버 토론, 운동사회에서 기부장제 뿌리뽑기 내용으로 기획연재
- 학생운동사회 내 성폭력 관련 대학별 강연

3. 여성의 요구로 반미반전 운동을 활성화함으로써 6.15 공동선언 이행 운동을 활성화합시다.

1) 학우들이 대중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행동을 기획합시다.

대학별 인터넷 행동 / 여학우 집중 행동

2) 반미반전의 구체적인 내용을 학우들과 함께 공유합시다.

- 미국의 전쟁정책에 대한 내용

- 여성들이 전쟁에 반대해야하는 이유, 전쟁이 여성에게 남긴 것(역사적으로) 등

3) 6·15 공동선언 관련

4. 계기를 살려 여성취업, 반기부장제 운동, 여성학자사업에 대한 내용을 대학별 상황에 맞게 학우들과 함께합시다.

앞서 <3대 기조>에서 밝혔듯이, 반성폭력운동과 반미반전운동을 1년 내도록 진행하되, 그 외 다양한 사업과 투쟁들을 계기를 살려 진행합시다. 호주제, 군사주의 문화 등 다양한 반기부장제 운동의 내용을 정세에 따라, 혹은 대중사업 속에서 학우들과 공유합시다. 그리고 여학우들의 취업문제, 여성학자사업 등에 대해 취업워크샵, 학자투쟁 등 계기에 맞게 진행합시다.

1) 여학우들의 취업에 대한 사업을 주체적으로 진행합시다.

여학우들의 취업에 대한 의식 및 실태에 대해 조사하고, 그에 바탕하여 여학우 취업 관련 사업을 진행합시다.

대학 취업정보센터, 여대생취업지원센터 등과 연계하거나, 여학생 취업한마당 등 개최하는 등 대학 상황에 맞게 기획해봅시다.

2) 계기를 살려 호주제 폐지, 성매매, 군사주의 반대 등 다양한 반기부장제 운동의 내용을 학우들과 공유합시다.

① 호주제와 성매매와 관련한 소식, 문화제나 실천활동, 설문조사 등의 계기를 살려 호주제, 성매매에 대한 내용을 학우들과 공유합시다.

② 학우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실천을 기획합시다. (부모성 함께쓰기 등)

③ 학우들의 생활 속에 있는 다양한 가부장제(군사주의 문화 등)에 대해 일상적인 생활문화운동을 펼칩니다.

3) 대학 상황에 맞는 여성학자사업을 만들자

대학별로 여학우들의 생활과 의식을 토대로 여성학자 사안을 도출합니다. (예 : 여자화장실, 여성예산 및 기금 조성 등)
여학우들의 생활과 의식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여성학자 사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5. 대학 상황에 맞게 소모임 사업 혹은 총여학생회 기충단위를 활성화합시다.

소모임을 꾸리고 활성화시키는 목표를 잡거나, 단대/과 여학생회 등의 총여학생회 기충단위 활성화를 목표로 잡는 등 대학 상황에 맞게 집중적으로 사업할 목표를 잡읍시다. 그리고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봅시다.

(1) 소모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 1) 소모임이 없는 대학은 소모임을 꾸립시다.
- 2) 소모임 주체 모임 - 대학별 / 지역별
- 3) 소모임 운영에 대한 토론과 학습, 계획 수립 등으로 소모임 운영을 체계화해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자세한 것은 소모임 운영 관련 문서 참고)

(2) 단대/과 여학생회 등 총여학생회 기충단위 활성화를 위해

- 1) 단대/과 여학생회가 없는 대학은 단대/과 여학생회(부)를 세우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기획하고 실천합시다.
 - 단대/과 학생회와의 간담회, 단대/과 여학생일꾼 모임, 단대/과 여학우들과의 만남 등
- 2) 단대/과 여학생회와 정기적으로 만납시다.
단대 여학생회가 있는 대학의 경우, 총여학생회 중앙운영위를 꾸준하게 열어냅시다. 과 여학생회가 있는 경우, 과 여학생회(부)장 모임을 정기적으로 열어냅시다. 이런 모임을 다채롭게 꾸며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6. 더 많은 학우들이 총여학생회 주체로 활동할 수 있게, 모든 방법을 활용합시다. (총여학생회에 사람을 남기기 위한 모든 방법을 적극적으로 진행합니다.)

7. (총)여학생회 일꾼들의 공동생활을 일차고 활기차게 꾸리고, (총)여학생회 일꾼들로부터 여성학을 심도있고 즐겁게 공부하고 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진행합시다.

- 1) (총)여학생회 일꾼들의 공동생활을 일차고 활기차게 꾸려야 합니다.

2) 여학생운동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기 위한 대학 차원의 활동을 개시합니다.

여학생운동의 내용을 마련하고 풍부하게 하기 위해 각 대학에서 토론과 학습을 진행하고, <전여대협 여학생운동 토론회>를 통해 전국적으로 모아나갑시다.

8. 총여학생회 체계를 확대 및 안정화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단위 학생회[과여학생회]와의 공동사업을 상황에 맞게 만들어냅시다.

① 시기별 주요 사업 (시기별 흐름으로 제출. 전여대협 전체적으로 진행하게 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제출)

<3·8 세계 여성의 날>

<전여대협 총회 및 혜오름식> - 4.25~26 혹은 4.26~27 (가)

<봄농활>

<5.31 여성문화제> (가)

각 대학에서 상반기 동안 진행한 투쟁과 사업의 성과를 모아 전여대협 차원의 여성문화제를 열어낸다. 구체적인 계획은 추후 제출

<6·13 미군 장갑차 살인사건 희생자 故 신효순, 심미선 1주기 ~ 6·15 민족통일대축전>

<여름농활>

<여름 기지촌활동>

<전여대협 수련회 / 여학생운동 토론회> (가)

전여대협의 발전 전망에 대해 심도있게 토론향하기 위한 여학생운동 토론회를 열어낼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추후 제출

<12월 (차기) 총여학생회장단 모임>

<겨울 기지촌활동>

② 그 외 주요 사업 (연중 진행할 주요사업 및 대학별 상황에 맞게 시기를 정하는 사업)

1. 연중 지속적, 정기적인 학우 소통[의견수렴] 사업

2. 세내기사업

3. 대학별 여성 문화제 / 여성 특별주간 : 핵심 내용은 반성폭력, 반전평화

4. 대학별 취업 워크샵

5. 인터뷰 사업

전여대협은 1년 동안 인터뷰 사업을 통해 여러 대학의 모범들을 전국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 대상 : 각 대학 및 지역에서 진행된 모범
- 인터뷰 주제 및 방식 : 그때그때 모범의 대상에 따라 총여학생회나 단대 여학생회, 지역여대협 등에서 직접 인터뷰를 하고, 그것을 전여대협 홈페이지 <인터뷰>를 비롯, 여러 홈페이지에 올려 전국적으로 알립니다.
- 인터뷰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해당 사업의 준비과정, 잘 진행된 요인, 이후 계획 등의 내용을 담은 기본틀거리를 전여대협에서 제출하고, 그때그때 더 구체적인 내용을 첨가하여 진행합니다.

III. 9기 전여대협 주요 사업

불평등 투쟁 → 국가정당(동부, 남부, 여부) 등은 70년대 학생운동을

행동기지를 빼면서 투쟁하지 않는 시기...

학생운동사회 내 기부장적 인식과 모습에 대한 의식화 활동

성과 - 지난해의 성과에 이어 올해에도 의식조사, 기획연재 등 학생운동사회 내 성폭력을 비롯한 기부장적 인식에 대한 교양사업을 진행했다.

한계 -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의 교훈을 바탕으로, 교양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일방적이지 않은 내용으로 토론을 유도하여 지속적으로 진행하고자 계획하였다. 그러나 기획연재가 지속적이지 못하였고, 대학 차원에서 이에 대한 토론이 보장되지 못함으로 인해 애초의 계획이 실행되지 못하였다.

과제

- 이후에 이런 측면을 토론하고 교양해가는데 있어서는 각 대학의 여학일꾼들이 우선적으로 토론, 교양하고, 대학 여학일꾼들이 주체가 되어 대학 차원의 토론을 이끌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 특히 새학생운동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가는데 있어서, 학생운동사회 내 기부장적 인식에 대한 교양사업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대중의식교양과 조직사상운동의 측면을 모두 고려한 방식과 내용으로 고민되어야 한다.

9기 전여대협 평가 초안

0. 평가를 하기에 앞서

1. 9기 전여대협 총평

대중사업이 더욱 통크게 진행되었으나, 전반 운동의 흐름과 전망 속에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1회적인 측면이 많았다.

사업시작의 전형이 매우 부족하다. (핵심이 부족)

→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가!

2. 9기 전여대협 대중투쟁 평가

1) 6.15 공동선언 이행 투쟁 / 반미자주화 투쟁 평가

정세에 대한 인식이 대체로 부족했다.

(1) 들어가는 흐름을 못 만들었고,
- 인사들이 긴지 못했다. 자체흐름을 따라 2016 투쟁 진행.
6.15 공동선언에 대한 이해를 올해 자체선언과 맞물려 진행.

2) 반기부장제 운동 평가

반성폭력 운동

상반기 반성폭력 운동을 핵심적 과제로 삼고 활동해왔다.

많은 대학에서 '반성폭력'을 핵심적 내용으로 사업했으며, 이런 힘을 바탕으로 반성폭력 문화제를 성사할 수 있었다. 반성폭력 문화제를 준비해 가면서 여러 대학에서 학우들과 함께 반성폭력 선언운동을 대중적으로 진행하고자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반성폭력 문화제는 여러 대학에서 반성폭력운동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기점으로 작용했다고 평가된다.

반성폭력 운동이 구체화, 심화되지 못하고 있다.

대학 내에서의 꾸준한 반성폭력 운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성폭력 운동의 내용이 구체화되거나 심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학우들의 구체적 인식과 생활을 토대로 반성폭력 운동을 계획하고 진행하지 못한 데 기인한다. 몇몇 대학에서 성폭력 실태조사나 의식조사 등을 진행한 경우에도 이를 제대로 분석하여 반성폭력 운동의 밑천으로 삼지 못하였다.

호주제 폐지 운동
시기를 못 맞출 거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서 주축화할 듯.
특히 꿈무희의 동아후 암장 등 있는 것 같다.

각 대학마다 부모성함께쓰기, 호주제 폐지 서명운동, 호주제 폐지 강연회, 호주제 폐지 기획전 등 호주제 폐지 운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왔으며, 대학 내에서 호주제 폐지에 대한 여론을 확장시켰다. 특히 경희대의 모범

호주제 폐지 운동을 더욱 본질적인 투쟁으로 발전시키고 주동적 흐름을 만드는데 부족함이 있었다.

호주제 폐지는 단순히 하나의 법을 폐지하는 것을 넘어서 성차별에 대한 근본적인 의식화와 조직화가 진행되어야 하는 운동이다. 단순히 하나의 법을 폐지하는 것을 중심으로 비라보면 호주제 폐지의 주체는 국회의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러 대학에서 호주제 폐지 운동을 주동적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여성단체들에서 진행하는 호주제 폐지 운동의 흐름에 따라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 과정에서 학우들을 더욱 근본적으로 의식화하고 학우들을 호주제 폐지 운동의 주체로 세우는데 부족했던 측면이 있다. 그래서 호주제 폐지의 주동적이고 기동성있는 흐름을 만들지 못했다.

반기부장제 운동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반기부장제 운동에 주를 많이 들리고 활동해왔던 성과가 있다.

여러 대학에서 대중사업을 계기로 다양한 내용의 기부장적 모순들을 제기하고 의식화했다.

그러나 반기부장제 운동의 의식화가 본질적이고 비약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는 의식화가 1회적이었던 점과 핵심을 잡지 못하고 여러 문제를 서기해 그친 점, 학우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바꾸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사색과 연구가 부족했던 점 등이 그 원인이라고 본다.

중심과제가 무엇인가? 모든 것을 일상사업으로 둘러싸우는 것인가?
— 학우들은 무도하고 사색과 연구가 부족했던 점 등이 그 원인이라고 본다.

3) 여성민중생존권 투쟁 및 연대사업 평가

농활에서의 성과 - 농활을 준비하면서 4자 연대에 대한 관심

여성노동권 투쟁에 대해서는 의식 자체가 매우 부족했다.

여성노동권 투쟁에 대한 의식 자체가 부족하였으며, 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투쟁을 해나가기 위한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였다.

충남 예산 차시증 사건을 계기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와 관련해서 계획을 제출한 바 있었지만, 진행된 활동은 그다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여성노동권 투쟁에 대한 지속적인 계획이 없고 인식이 부족한데 기인한다.

기타 연대사업 평가

4) 대중의식화 평가

여러 대학에서 대중사업을 통해 다양한 내용으로 창발적으로 의식화했다.

그러나 대중운동의 일반적 원리로서의 의식화 사업은 매우 부족한 현황이다.

대중의식화는 학우들을 사업과 투쟁의 주인주체로 세워나가기 위한 선차적 공정으로서 진행될 때, 그 빛을 발할 수 있다. 의식화사업이 여전히 1회적이며, 내용적으로 심화되거나 상승되지 못하고 있다.

의식화사업이 학우들의 의식에 기반하지 못하고 있다.

학우들의 의식 정도에 기반하여 의식화의 내용과 방도가 계획되지 못하고 있으며, 일방적이다. 이런 이유로 기동성도 낮다.

의식화 사업에 대한 전여대협의 담보가 부족했다.

3. 9기 전여대협 조직사상운동 평가 : 지난 2021

핵심의 부족

대학 골간단위와의 교양사업이 매우 부족한 현황 / 오해와 불신

여전히 의식화에 대한 대처

새학생운동(새조직) 논의에 있어서 내용(내용적 둘)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 주제를, 주제시작을.

→ 핵심부, 스파이

→ 전여대중에 대한 대처

→ 새시대여전여대중
(자기혁신)

4. 전여대협의 핵심적 과제

도록 제제 제작, 도록 제작

대중운동

핵심적 평가 부분

대중의식화

학우들의 의식이 얼마나 높아졌는가? 학우들과 일상적으로 만났는가? 학우들을 지속적으로 의식화했는가?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의식화했는가? 의식화의 방도는 어떠했는가?

대중투쟁

반성폭력 운동

반성폭력 운동을 중심적인 과제로 삼고 사업해왔다. (특히 1학기)

반성폭력 문화제를 성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반성폭력 선언운동을 학우들과 함께 대중적으로 진행하고자 노력한 단위들이 많았다.

반성폭력 운동의 내용을 마련하는데 부족함이 있었다.

성폭력에 대한 학우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 등을 진행하는 노력을 진행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설문조사(실태조사)를 진행한 대학이라 하더라도 그 인식을 바탕으로 반성폭력 운동의 내용을 더 심화시키기는 못했다.

반미주화 / 6.15 공동선언 이행 투쟁

사업의 일회성을 벗어나지 못했다. 사업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문제

(시기별 사업계획을 어떻게 마련했는가? 사업을 중심으로 계획하지 않았는가?)

전여대협과 총여학생회가 사업과 투쟁의 핵심을 잘 잡고 있는 문제

현재의 여학일꾼들을 핵심인자로 담보해줄 역량이 없는 문제 - 사람없음의 문제, 총여 활동이 '운동'이 아닌 '사업' 중심으로 진행되는 문제 등

9기 전여대협 평가

총평

대중사업 및 투쟁

정체인식력에 대한 부분

-사업과 투쟁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지 못하고

-어떠한 방향성 속에서 사업과 투쟁을 벌여야할 것인가?

전여대협 중앙에서 제출되는 사업과 투쟁에 대해

-정체의 요구, 기층의 요구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

사업 집행이 완벽하지 않았으며, 집행점검이 잘 되지 못하고 있다.

대중사업을 통크게 벌여낸 성과 존재

-3.8 투쟁

-상반기 반성폭력 운동 과정

-농활 등

-대중강좌

→그러나, 기층을 얼마나 주체로 내세우는 과정으로 준비하고 성과를 만들었는가 평가해보아야겠다.

여학생운동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

조직사상사업 평가

▶조직사상사업의 목표에 대한 평가

-여학생운동 대중화 과정에서 몇 해 동안 강조하여 온 조직사상사업의 과제제출 측면에서 너무나 당연하고 적절한 내용을 제출했다고 볼 수 있겠

-그러나 부족한 점이라면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핵심일꾼들의 역할을 높이고 단련하는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들이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지 못함으로 해서 조직사상사업 측면에서 제출한 목표가 높은 수준에서 그리고 전반적으로 구현되지는 못하였다.

-분명 객관적인 한계는 존재한다. 더 많은 요구성으로 인해 많은 일들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인데 준비정도가 속도감 있게 높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낸 단위들도 있다. 그 단위들에 대한 구체적인 충화를 통해 향후 대책을 세워야겠다. 경희대, 동아대 경영대 →객관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비약적인 상승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

▷조직사상 사업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단위에 대한 평가 : 더 충화하고 고민해야겠지만

-경희대

-핵심일꾼이 지속적으로 사업과 투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 단위에 대한 여학생운동의 내용 확대 사업을 벌여냈고 주체가 될 만한 인자들을 꾸준히 키워나가는 과정이 함께 결합되어 이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동아대 여학생위원회 소모임 허심탄회

▶핵심을 키우거나 핵심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올해 어떤 활동을 했는가.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학습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민중의 삶을 보고 느끼며 운동을 인생관화 신념화해야 한다

-조직생활을 통해 점검충화되어야 한다.

-실천과 투쟁을 통해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사상사업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올해 실제 그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였으나 꾸준히 추진하지 못하였다.

-지역여대협 조직국 모임에 대한 평가

-학습 지도 및 학습 내용 제출, 책 읽기 운동 등

-주체의 문제, 객관적 현실 존재

지도사업 조직국 등 지역 조직국 모임을 통해 강제하려 했던 계획이 잘 진행되지 못하면서 실제 대책을 마련해나가지 못하였다.

나름대로 학습 방도와 내용들을 마련하고 제출하는 노력을 기하였으나 일꾼들의 관점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매달 책 읽기 운동을 통해 학습에 대한 습관을 들여 사상운동을 활성화화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제출 단계에 그친 듯 하다. 단위별로 책 읽기 운동에 대한 효용성을 평가해볼 필요가 있겠다.

→객관적인 현황도 고려하여, 실질적인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겠는가.

▷ 대중실천활동에 있어서

▶대중사업과 투쟁을 진행하는데 있어 여전히 많은 편향이 존재한다.

-대중사업이 여전히 치러내기식으로 진행되는 단위가 많으며 그러다 보니 전반적인 사상의식의 변화와 조직화를 염두에 두며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연대사업 평가

여성농민 노동자와의 연대사업

-농활을 통해 전여농과의 연대사업이 강화되었으며, 농학연대 4개 단위 공동목표에 여성농민운동, 여학생 운동에 대한 내용을 녹여내는 등 전체화하는데 성과를 거두었다.

-여성노동자의 연대사업을 거의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청년, 학생단위와의 연대사업

-3.8 투쟁을 함께 진행하면서 학단위와의 연대사업을 진행하였다. 지속적으로 진행하지는 못하였다.

-학생대책위 사업에 대한 대책위를 통한 연대사업은 거의 진행하지 못하였다.

-통일사업 등 청년학생단위와의 연대를 계속적으로 진행하였다.

여성사안 연대

여성단체 연대사업

-여러 사업들을 함께 진행하면서 전여대협의 위상을 높여나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여대협에 대해 사람동원 또는 실무적인 역할을 맡기는 수준으로 이해하는 정도가 많다.

9기 전여대협 평가 (초안)

0. 평가를 하기에 앞서

1. 9기 전여대협 총평

대중사업이 더욱 통로개 진행되었으나, 전반 운동의 흐름과 전망 속에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1회적인 측면이 많았다.

2016. 6. 21.

사람사업의 전성이 매우 부족하다. (핵심이 부족)

핵심투쟁과제를 설정할 때 총체적 통찰이 부족합니다. (?)

2. 9기 전여대협 대중투쟁 평가

1) 6.15 공동선언 이행 투쟁 / 반미자주화 투쟁 평가

전쟁반대, 이라크파병반대를 비롯하여 6.15공동선언 이행투쟁, 반미자주화 투쟁에서 여학단위의 자체 사업을 계획, 진행하였으나 지속적이지 못했습니다.

올초 미국에 의한 이라크전쟁에 대해 국내외적 비난이 빗발치고 이라크 파병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면서 여학단위에서도 반전운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전쟁반대, 이라크파병반대에 대한 전체적인 투쟁과 사업은 물론이고, 특히 전쟁이 여성에게 미치는 악영향과 직간접적인 피해 등에 대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학우들에게 의식화하였습니다. (자체적인 선전전이나 사업은?) 또한 8월에는 지역에서 여성단체들과 여학단위가 함께 대구경북지역 통일여성캠페인, 광주전남여성통일큰잔치 등을 진행했으며, 8.15 민족공동행사 때에도 여성통일운동의 내용을 더욱 담고자 노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6.15 공동선언 이행투쟁과 반미자주화 투쟁 등에 대한 여학단위 자체의 계획은 여전히 부족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조국통일, 반미자주화 투쟁에 있어 여성통일운동의 내용과 전망이 아직 불투명하여, 여학단위가 주동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조국통일, 반미자주화와 여성해방의 연관고리 및 구체적 내용을 명확히 도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학단위에서 공동선언 이행, 반미자주화 투장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실천적 정성이 부족합니다. 여성통일운동의 내용과 전망이 불투명하다보니 많은 여학단위가 주동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지난 8.15에 개최된 3회 여성통일한미당에서 볼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도 여성통일운동이 단편적인 내용과 형식에 머물러있는 것이 한계로 나섭니다.

정세 인식이 대체로 부족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정세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습니다. 정세는 격동적으로 흘러가는데 이에 대한 토론은 별로 진행되지 못하였으며, 조직생활 속에서 정세 토론이 일상적으로 담보되지 못했습니다. 정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절박성이 부족하다보니 주동성도 떨어졌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2) 반기부장제 운동 평가

(반기부장제 운동 전반을 평가하되, 그 중 중심적으로 진행한 투쟁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평가합니다.)

<반기부장제 운동 전반 평가>

반기부장제 운동 전반이 사안별로 분절적으로 진행되는 한계가 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반기부장제 운동에 주를 많이 돌리고 활동해왔습니다.

여러 대학에서 대중사업을 계기로 다양한 내용의 가부장적 모순들을 제기하고 의식화했습니다.

그러나 반기부장제 운동의 의식화가 본질적이고 비약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는 의식화가 1회적이었던 점과 핵심을 잡지 못하고 여러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친 점, 학우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바꾸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사색과 연구가 부족했던 점 등이 그 원인이라고 본다.

<반성폭력 운동>

상반기 반성폭력 운동을 핵심적 과제로 삼고 활동해왔다.

많은 대학에서 '반성폭력'을 핵심 내용으로 강연, 여러 매체를 통한 일상의식화 및 기획선전, 설문조사 등을 진행하고 문화제 등의 대중사업을 진행했다. 각 대학에서 반성폭력 운동을 핵심적 과제로 삼고 활동했던 것을 비탕으로 지난 5월 <전여대협 반성폭력 문화제>를 성사할 수 있었다. 반성폭력 문화제를 준비해가면서 여러 대학에서 학우들과 함께 반성폭력 선언운동을 대중적으로 진행하고자 자체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여러 대학이 실제로 대중적으로 반성폭력 선언운동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반성폭력 문화제는 여러 대학에서 반성폭력운동의 흐름을 주동적으로 만들어내는 하나의 기점으로 작용했다고 평가된다.

반성폭력 운동이 구체화, 심화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각 대학에서 반성폭력 운동을 꾸준히 벌여왔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폭력 운동이 답습되거나 같은 내용의 의식화를 여러 차례 진행하는 등 한 단계 도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테면, 성폭력에 대한 학우들의 인식과 생활을 토대로 반성폭력 운동의 내용을 마련하고 활동을 계획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폭력에 대한 일반적 의식화에 머무르거나 대중사업에서 1회적으로 진행하는 기획사업에 불과한 것이다. 몇몇 대학에서 성폭력 실태조사나 의식조사 등을 진행한 경우에도 이를 제대로 분석하여 반성폭력 운동의 밑천으로 삼지 못하였다.

각 대학마다 학우들의 구체적 인식을 토대로 자체적으로 반성폭력 운동의 내용을 더욱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대학 학우들의 인식정도와 현황에 맞게 심화시킬 과제가 있습니다.

<호주제 폐지 운동>

호주제 폐지 운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왔다.

각 대학마다 부모성함께쓰기, 호주제 폐지 서명운동, 호주제 폐지 강연회, 호주제 폐지 기획전 등 호주제 폐지 운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왔으며, 대학 내에서 호주제 폐지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켰다. 특히 경희대의 경우, 학우들과 일꾼들을 대상으로 호주제 폐지 강연회는 물론 여러 차례에 걸친 의식화를 진행했으며, 경희대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와 함께 활동하여 30명 이상의 일꾼들이 부모성함께쓰기(혹은 부모성안쓰기)에 직접 동참하도록 사업하고 그 일꾼들을 모아 총여에서 직접 강연을 하고 함께 부모성함께쓰기 조형물을 만들기도 하였다. 또한 대중사업에서 학우들과 함께 부모성함께쓰기 열쇠고리를 만들어주는 활동을 하는 등 호주제 폐지 운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했다.

호주제 폐지 운동을 더욱 본질적인 투쟁으로 발전시키고 주동적 흐름을 만드는데 부족함이 있었다.

호주제 폐지는 단순히 하나의 법을 폐지하는 것을 넘어서 성차별에 대한 근본적인 의식화와 조직화가 진행되어야 하는 운동이다. 단순히 하나의 법을 폐지하는 것을 중심으로 바라보면 호주제 폐지의 주체는 국회의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러 대학에서 호주제 폐지 운동을 주동적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여성단체들에서 진행하는 호주제 폐지 운동의 흐름에 따라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 과정에서 학우들을 더욱 근본적으로 의식화하고 학우들을 호주제 폐지 운동의 주체로 세우는데 부족했던 측

면이 있다. 그래서 호주제 폐지의 주동적이고 기동성있는 흐름을 만들지 못했다.

시기적절하고 기동적으로 진행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율초 호주제 폐지를 둘러싼 여러 흐름을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시기적절하게 사업과 투쟁을 진행하지 못했다. 특히 하반기 국무회의에서 호주제 폐지를 의결했을 때 이에 대해 전여대협 중앙을 비롯해 대부분의 대학에서 성명서는커녕 속보선전조차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또한 하반기 호주제폐지 과학생회 선언운동의 경우, 각 대학의 흐름이 늦어지면서 선언운동을 모으고 기자회견을 하는 일정이 늦어졌고, 기자회견 이후에도 척결한 투쟁을 만들어내지 못하였던 바 있다.

<학생운동사회 내 가부장적 인식과 모습에 대한 의식화 활동>

학생운동사회 내 가부장적 인식과 모습에 대한 교양사업을 진행한 것 자체가 성과입니다.

지난해에 진행했던 의식조사 및 각종 인터넷 교양(문제제기)의 성과에 이어 올해에도 상반기 한총련 대의원대회에서의 <한총련 일꾼들의 의식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전여대협 기획연재-양성평등한 학생운동사회를 위하여>를 진행하는 등 학생운동사회 내 성폭력을 비롯한 가부장적 인식에 대한 교양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전여대협의 각종 제기가 지속적이지 못하고 다소 표면적이었다는 비판(한계)을 극복하기 위해 기획연재를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학생운동사회 내 가부장적 인식에 대해 더욱 본질적이고 전면적으로 의식화하지 못하였습니다.

기획연재를 진행한 것은, 교양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계기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며 전면적으로 교양하기 위함이었으며, 일방적이지 않게 토론을 유도하여 더욱 본질적으로 의식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기획연재가 2회에 그쳐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고, 각 대학에서 기획연재의 내용과 학생운동사회 가부장적 인식에 대한 토론을 여학단위에서 보장하지 못하여, 이에 대한 의식화가 한 단계 심화되지 못하였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여성주의에 대한 각종 논의, 논란이 있었으나 이에 대해 적극적이고 시기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였습니다. 올해 한총련 홈페이지에서는 여성주의에 대한 사안별 논란을 비롯해 여성해방운동에 대한 전반 내용을 다루는 논의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일꾼들이 논의를 진행하기도 하였지만, 대체로 방치해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인터넷 상에서의 여러 의견들을 잘 활용하면 학생운동사회 내 가부장적 인식을 바꾸기 위한 교양사업 뿐만 아니라 여학생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도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계기를 활용하지 못하고, 적극적이며 시기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였습니다.

과제

- 이후에 이런 내용을 토론하고 교양해가는데 있어서는 각 대학의 여학일꾼들이 우선적으로 토론, 교양하고, 대학 여학일꾼들이 주체가 되어 대학 차원의 토론을 이끌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히 새학생운동에 대한 논의에서, 학생운동사회 내 가부장적 인식에 대한 교양사업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대중의식교양과 조직사상운동의 측면을 모두 고려한 방식과 내용으로 고민되어야 한다.

3) 여성민중생존권 투쟁 및 연대사업 평가

농활을 통해 전여농과의 연대사업이 강화되었으며, 농학 4자 연대에 대한 관점이 높아졌습니다.

지난 3월에 진행되었던 농학연대일꾼수련회에서 전여농과 전여대협이 여성농민운동 및 여농학연대의 관점에서 바라본 농활 혁신 방향에 대해 발제하고 함께 토론함으로써 전여대협-한총련-전여농-전농의 농학 4자 연대에 대한 관점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성과로 부경지역 등에서는 이전보다 농활을 준비할 때 여농학연대 주체를 더욱 적극적으로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농활을 준비하면서 여성농민운동에 대한 농활대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동영상을 전여농과 전여대협이 함께 제작하고 인터넷으로 배포하는 등 전여농과의 연대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여성노동권 투쟁에 대해서는 의식 자체가 매우 부족했다.

여성노동권 투쟁에 대한 의식 자체가 부족하였으며, 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투쟁을 해나가기 위한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였다. 충남 예산 차시중 사건을 계기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와 관련해서 계획을 제출한 바 있었지만, 진행된 활동은 그다지 없었던 것 이 사실이다. 이는 여성노동권 투쟁에 대한 지속적인 계획이 없고 인식이 부족한데 기인한다.

이후에는 여성노동자 투쟁에 대한 결합뿐만 아니라 여성노동권 투쟁에 대한 자체 계획을 세우고 연대사업의 폭과 깊이를 비상히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기타 연대사업 평가>

청년, 학생단위와의 연대사업

- 3.8 투쟁을 함께 진행하면서 학단위와의 연대사업을 진행하였다. 지속적으로 진행하지는 못하였다.
- 통일사업 등 청년학생단위와의 연대를 계속적으로 진행하였다.

여성단체 연대사업

- 대한민국여성축제 등 여러 사업들을 함께 진행하면서 전여대협의 위상을 높여나가고 있다.
- 그러나 여성단체들과의 사업이 사안별로 분절적이며, 여성단체들의 경우 아직까지 전여대협에 대해 사립동원 또는 실무적인 역할을 맡기는 수준으로 이해하는 정도가 많다.

4) 대중의식화 평가

여러 대학에서 대중사업을 통해 다양한 내용을 창발적으로 의식화했다.

그러나 학우들을 사업과 투쟁의 주체로 세워내기 위한 의식화 사업은 매우 부족한 현황입니다.

대중의식화는 학우들의 의식을 높여내고 사업과 투쟁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체로 세워내기 위해 진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의식화가 대중사업에서 기획선전 식으로 1회적으로 진행되면서 내용적으로 심화되거나 상승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중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다. 대중사업에서의 1회적인 대중의식화를 뛰어넘어, 한해 대중의식화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이며 장기적인 계획과 내용적 전망을 세워야 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그에 기반하여 대중의식화를 진행할 때, 학우들의 의식을 점차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의식화사업이 학우들의 의식에 기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중의식화를 진행하는 것은 학우들의 의식을 높이고 학우들을 주체로 세워내기 위한 것인만큼 학우들의 의식 정도에 기반하여 의식화의 내용과 방도를 도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식화사업의 내용들이 일반적인 내용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몇 대학에서 학우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설문조사를 진행한 경우에도 설문조사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학우들의 의식을 토대로 의식화 내용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성폭력운동의 경우 학우들이 성폭력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이 어떠한지, 생활속에서 학우들이 느끼는 성폭력의 실태가 어떠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다 보니 성폭력에 대해 일반적인 내용을 대중사업 때마다 반복하는 한계가 나서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의식화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학우들의 인식이 상승되지 못하고 있으며, 의식화가 일방적인 한계가 나서고 있습니다.

의식화사업이 학우들의 의식에 기반하여 상승할 수 있도록 학우들과의 소통을 통한 의식화사업, 심층적 분석을 통한 상승적 의식화사업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식화가 기동적이고 시기적절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